

국악관현악으로 만나는 이색 무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특별연주회 '이카로스'를 펼친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30주년 '이카로스' 모티브 미래가치 모색 신화 상징적 서사 한국적 재해석 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대금 협연 김상연 교수

그리스 신화 속 '이카로스(Ikaros)'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다 밀랍 날개가 녹아버려 추락한 인물이다. 그는 욕망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이카로스를 모티브로 미래 가치를 모색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창단 30주년을 맞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이 오는 26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이카로스'를 선보인다. 지난 1994년 창단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역 내·외에서 총 300여 회 공연을 통해 남도 국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목포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을 비롯해 카메라라 전남 등이 협연하며 위촉 초연곡, 창작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국악관현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백대웅 작곡 '남도아리랑'으로 막을 연다. 남도의 대표적인 민요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요 테마로 세마치, 6/4 장단 변화에 포인트를 뒀

으며, 역동과 서정의 대비가 선명한 곡이다. 대금산조의 창시자라 불리는 박종기의 맥이 깃든 '서용석류 대금산조'도 레퍼토리에 있다. 불임새(사설과 장단 사이의 결합 양상)가 정확하며 굵은 선과 강한 힘이 느껴지는 산조다. 박위철이 편곡을 맡아 소리의 강약을 순발력 있게 변화시키는 극적 표현력과 시김새를 더했다. 협연에 김상연 교수(전남대). 김 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국악원 단원을 역임했으며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1997)과 KBS 국악대상(2020) 등을 수상했다. 창단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위촉 창작된 후 초연되는 작품들도 있다. 이정호가 작곡한 '불의 춤'은 고조되는 뜨거운 에너지를 실험적 색채감과 음의 배치에 투영, '변화무쌍' 리듬감을 전한다.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정열적인 무곡(舞曲)이며 색다른 관현악법을 기대할 수 있다. 대미는 황호준이 작사하고 곡을 입힌 '이카로스'다. 앞서 언급한 이카로스 신화를 모티브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주의적 면모를 광주 정

신과 접목했다. 이 노래는 전통 가창자로 구성된 동양의 합창 방식과 서양합창의 음향적 조화를 모색했다. '이카로스 서곡'으로 시작해 1악장의 '태양을 향한 비상', 2악장 '미궁', 3악장 '날개'와 4-5악장의 '황혼의 노래', '영원을 향한 비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그리스 신화의 상징적 서사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다. 박승희 상임지휘자는 "'이카로스'는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추구했던 이들을 위한 노래"라며 "악곡을 통해 광주의 시대정신이 더는 '진혼'의 대상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찬미'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곡을 설명했다. '우리소리바라지'에서 보컬로 활동 중인 소리꾼 김윤희를 비롯해 광주시립창극단원 8인(김연옥, 윤세인 등), 카메라라전남과 목포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출연한다. 한편 30돌을 맞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을 시작으로 올해 '아장제 재현', '충장축제 폐막공연'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악관현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영남대 국악과와 프란츠슈베르트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위촉작곡가 이정호는 지난해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앙대 및 동 대학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황호준 작곡가는 KBS 국악대상(작곡), 대한민국 작곡상 등을 받았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그즈스모헝기'은 어디?

광주여성가족재단, 27일까지 새 청사 이전 초성퀴즈 SNS 이벤트

최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새 동지를 둔 '그즈스모헝기', 어디일까. (재)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래)이 오는 27일까지 재단 청사 이전을 기념해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SNS 타그램에서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이벤트 게시물에 정답 댓글을 남기고 별도의 네이버 폼에 경품을 수령할 정보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중 8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제공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광주시민회관(남구 구동 21-1)으로 청사를 이전해 시민 개방·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성평등 문화가치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의 여성·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약을 통해 사회 여건 변화 및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1층에는 전시실·북카페, 수유실이 마련될 예정이며 3층에 정책연구 및 행정업무 위한 사무실, 사업실과 돌봄지원단 공간 등은 4층에 꾸려진다. 재단 경영기획실 김태선 과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 청사 이전 및 역할 확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카소의 삶과 예술 다큐로 본다

ACC, 11일 특별 상영회



'피카소를 만나다' 한 장면. <ACC 제공>

지난 7월 16일 개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피카소 도에'(문화창조원 복합전시 4관)전이 개막 8월까지 6만2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전시와 연계된 특별 상영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11일 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피카소를 만나다 특별 상영회'를 연다. 작품은 촬영 당시 창작에 몰두해있던 피카소의 모습 외에도 평화의 메시지, 천재예술가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다양한자료 등을 담고 있다. 1954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루치아노 엠메르 작. 40분 분량 다큐멘터리 영화는 관찰자 시점을 매개로 전개된다.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가 피카소의 생애와 화풍, 도자에 담긴 미학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의 등을 관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양 교수는 TV 프로 '예술의 전당', '차이나는 클라스' 등에 출연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특별 상영회는 '피카소 도에' 전과 연계해 관객들이 관련 영상을 다채롭

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상영회를 통해 현대미술의 천재 거장 피카소의 예술세계 아니라 작품에 깃든 의미 등을 다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견희컬렉션 피카소 도에 107점을 만날 수 있다. 상영회 신청은 ACC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여라~ 광주 인디 밴드

음악나무숲, 8일 풍암호수공원서 뮤직 페스티벌



2022년 풍암호수공원에서 펼쳐진 '인디밴드 뮤직 페스티벌' 공연 장면. <음악나무숲 제공>

'인디 음악'은 음반 제작부터 유통, 홍보를 스스로 진행하는 뮤지션들의 노래를 일컫는다. 대중음악에 비해 선호도는 낮지만, 특유의 개성적 작품으로 마니아층이 적지 않다. (사)음악나무숲이 주최하는 '2024 광주 인디밴드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8일(풍암호수공원) 펼쳐진다. 광주 인디 음악을 발전시키고 청년 뮤지션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다. 8일 공연(오후 7시)에는 바다프로젝트, 양희범 밴드, 리페이지, 제4집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먼저 포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 '바다프로젝트'는 '안녕하세요 모두 다'를 시작으로 '꽃겨냥네', '시장에 가면', '커버곡 '웃어요' 등을 부른다. 이어 '페이지를 넘긴다'는 뜻의 4인조 리페이지

(RE:PAGE)가 추억 속 한 페이지에 있을 법한 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들은 앨범 수록곡 'Fat fat blues', 'See you next spring'을 비롯해 편곡 버전의 '안녕', '깊은 밤을 날아서' 등을 연주한다. 파격적인 작품으로 이목을 끄는 '제4집단'은 자반 앞에 무너진 사회경제 시스템을 노래한다. 관객들에게 정구 1집 LP 수록곡인 'NO.3'와 'PHONE', '공장대량생산' 및 '세상은 요지경' 등을 선사한다. 제14회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양산동 호랭이의 '골목길', '보노보노는 귀엽기라도 하지'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양산동 호랭이는 블루스 락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슈를 노래하고, 국내 블루스 음악을 재해석하는 아티스트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